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승려, 료칸

료칸(1758-1831년)은 일반 선종의 승려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료칸의 저서나 편지, 료칸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가 생활하던 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일화들을 통해, 그는 사원 승려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대신 검소하며 때때로 방랑하는 생활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료칸은 방랑 생활 중에 그의 시, 서예, 그리고 개성적이고 불임성 있는 성격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인품이 인망을 모아 료칸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료칸은 에치고국(현재 니가타현)의 이즈모자키마치에서 야마모토 에이조로 태어났습니다. 이즈모자키는 사도 섬에서 채굴한 금이나 은의 양륙항이었으며, 홋코쿠 가도의 여행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던 역참 마을로 번성했습니다. 료칸의 아버지는 마을의 장이었고 마을 내 신사의 신관이기도 해서 가정은 유복했습니다. 료칸은 장남으로 뒤를 잇기 위해 마을의 장이 되기 위한 견습생이 되었지만, 18세에 출가하여 료칸이라 이름 짓고 근처 고쇼지 절에서 거주했습니다.

얼마 후 고쿠센이라는 선사가 고쇼지 절을 방문했고, 이는 료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료칸은 고쿠센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쿠센은 이를 승낙했고, 두 사람은 바로 그의 고향인 다마시마(현재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의 일부)에 있는 엔쓰지 절로 갔습니다. 거기서 료칸은 아침 3시에 일어나서 경을 외고, 요리나 청소를 한 후 탁발을 하러 나가는 수행을 했습니다. 료칸에게는 ‘다이구(大愚)’라는 호도 있습니다. 이는 고쿠센이 하사한 호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아닌 사회적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현혹되지 않고 무심히 자신의 길을 통달하고자 하는 료칸을 향한 존칭입니다.

료칸이 절의 수행을 끝낸 이듬해에 고쿠센은 세상을 떠났으며, 료칸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엔쓰지 절을 나와 일본 전역을 순례하고 방문한 다른 절에서 가르침을 받아 빈곤한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동냥을 했습니다. 이는 득도한 후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는 동냥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몇 년간 주위 사람들의 친절에만 기대어 생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료칸이 시나 서예로 유명할 수도 있지만, 그는 유명한 인물의 의뢰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이 쓴 글을 누구에게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료칸은 가난한 사람들이 요청하는 경우나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만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썼습니다.

이윽고 료칸은 고향인 에치고로 돌아갔고, 최소한의 물건으로 둘러싸인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데라도마리에서는 초가집이나 쇼묘지 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자연을 향한 사랑은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빈곤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마찬가지로 많은 저작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료칸은 와시마무라(현재는 데라도마리와 함께 나가오카시로 합병됨)를 중심으로 많은 교우 관계를 맺었고, 이후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노년에 료칸을 보살펴준 젊은 여승, 덴신(1798-1872년)과의 교우 관계일 것입니다. 덴신과 만났을 때의 료칸은 70세였으며, 건강은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연령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빈번하게 하이쿠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분위기의 와카(일본 전통 정형시)에는 료칸다운 유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료칸의 벗으로는 말년의 후원자인 상인 기무라 모토에몬(1778-1848년)이 있습니다. 모토에몬은 료칸에게 이사하도록 집으로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체류하던 중 료칸은 덴신과 만납니다. 덴신의 말에 따르면 료칸이 세상을 떠날 때 마치 잠든 것처럼 명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시마에 있는 ‘료칸노사토 미술관’에는 료칸이 손으로 쓴 시와 서적 일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료칸이 방문한 장소, 그를 아는 사람들, 그가 남긴 작품 등이 있어 료칸의 인생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료칸이 자주 다니던 현지 장소의 대부분은 인근 하치스바 거리에 있습니다. 모토에몬의 집이나 료칸이 때때로 아이들과 놀던 신사 등이 있으며, 류센지 절에는 그의 묘가 있습니다.

이곳 나가오카에서는 료칸의 저작물을 직접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료칸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또 료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료칸이 세상을 떠난 지 2세기가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승려의 유산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